

 농림축산식품부	보도자료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2021년 7월 2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외식산업진흥과 과 장 문지인(044-201-2151), 사무관 류성훈(2157) / 제공 : 7월 27일(총 3매)		

적극적인 동참으로 안전한 나라

안전한 식사 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우수 지자체 6곳 선정

《 주 요 내 용 》

◆ 2021 상반기 안심식당 우수 지자체 선정

- (추진목적) 코로나19 확산 이후 ‘안심식당’ 운영을 통해 안전한 식사 문화 조성 및 외식산업 질적 성장 도모
- (평가방식) 2개 분야 평가 지표*를 바탕으로 상대평가
 - * 안심식당 목표 설정, 안심식당 추진 실적
- (평가결과) 광역 지자체: 1위)인천, 2위)경북, 3위)전남
기초 지자체: 1위)경북 경주, 2위)대구 동구·전북 완주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‘농식품부’)는 올해 상반기 ‘안심식당’ 운영 현황을 평가하여 총 6곳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였다.

* ①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·제공, ②위생적 수저 관리 및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지자체별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음식점

- 광역 지자체 부문에서는 인천광역시 1위, 경상북도가 2위, 전라남도가 3위로 평가되었으며,
- 기초 지자체 부문에서는 경상북도 경주시가 1위, 대구광역시 동구와 전라북도 완주군이 공동 2위로 평가되었다.

○ 선정된 지자체는 2021년 안심식당 목표 설정(관내 음식점 대비 비율, 2020년 대비 비율 등), 목표 대비 지정현황, 취소·변경 관리실적 등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곳이다.

□ 안심식당은 음식을 공유하는 우리 식사 문화를 바꾸는 데 앞장서는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작년 6월부터 농식품부 주관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정·관리하고 있다.

○ 7월 25일 기준으로 전국에 32,239개의 안심식당이 지정되었으며, 하반기까지 약 4만 개소를 목표로 지정 음식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농식품부 문지인 외식산업정책과장은 “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, 안심식당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게 외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”라면서

○ “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, 외식업계에서도 식사 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”라고 협조를 당부하였다.

우리동네 안심식당은 어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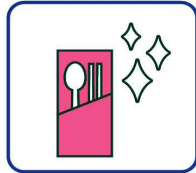
Q 안심식당이 무엇인가요?

“안심식당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식사문화를
안전하게 바꾸기 위해 도입되었어요!”

각 지자체에서는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를 비치·제공하고,
위생적 수저관리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고
지자체별 추가 요건을 이행하는 식당을 **안심식당**으로 지정한답니다.



덜어먹기 가능한
도구 비치·제공



위생적
수저관리



종사자
마스크 착용

Q 우리동네 안심식당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
네이버 · 카카오맵 · 다음 · 티맵 검색창
한식포털(www.hansik.or.kr)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!